

현진건의 『무영탑』, 그 미문주의의 허실

조남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현진건의 장편 역사소설 『무영탑(無影塔)』은 동아일보에 1938년 7월 20일부터 1939년 2월 7일까지 연재된 것이다. 이미 1920년대에 「불」, 「운수 좋은 날」, 「사립정신병원장」 등의 단편소설을 통해 리얼리스트와 민족주의자 그리고 저항주의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던 현진건이 일제통치가 절정에 달했던 1930년대 말에 그것도 역사소설을 썼던 것이니 만큼 『무영탑』은 단어 하나 문장 하나도 민족애로 반죽해 내었을 것이다. 1920년대의 발표작들은 현진건이 소설에서 정확한 묘사를 가장 중시하여 일어일물설(一語一物說)을 신봉하였음을 입증해 준다. 「빈처」, 「고향」 등과 같은 1920년대의 현진건의 단편소설들은 정확한 묘사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낸 점에서 『무영탑』의 원형적 존재에 해당한다. 이런 점에서 『무영탑』에서 한국적 자기동일성이 배여 있는 단어를 많이 만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역사소설이라는 유형은 언어는 주제를 직접 반영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일깨워 준다. 실제로 『무영탑』에서는 오늘날 방언이라든가 고유어에 관심이 많은 작가의 소설에서도 찾아 보기 힘든 단어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글세 그제 별판이야. 그래도 그 잔손질 만흔 다보탑을 시작한 것만 별판이지〉(1938.7.23.)에서의 ‘별판’은 ‘뜻밖에 좋은 판세’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한 남자와 두 여자! 찐답잔은 일인걸〉(1938.8.1.)에서 ‘찐답다’는 ‘떳떳하다’라는 뜻이니 만큼 ‘찐답잖다’는 ‘떳떳지 못하다’는 뜻이 된다. 〈거기 무슨 의지 깐이 있어요. 노박이로 비를 맞으실걸 뭐〉(1938.9.30.)에서 ‘노박이다’는 ‘한 가지 일에만 줄곧 둘러붙다’는 뜻을 지닌 것으로, ‘노박이로’는 ‘늘’, ‘항상’과 같은 부사의 기능을 보인다. 〈대감님께서 사랑에서 진동한둥 들어오시더니 마님께 무슨 분부를 내리신 모양이든택시요〉(1938.12.16.)에서 ‘진동한둥’은 ‘허둥대며 서두르는 모양’이라고 뜻풀이된다. 지금은 ‘허둥지둥’이라는 말로 통일해서 쓰고 있지만 ‘진동한둥’은 오늘에도 살려야 할 재미있는 단어임에 틀림 없다. 〈더구나 만일 그이가 아니엇든들 그 감때사나운 제자들을 누가 제어를 할 것인가〉(1938.10.24.)에서의 ‘감때사납다’라는 감찰맛나는 단어는 ‘매우 사납다’를 한 단어로 압축해 놓은 것이다. 〈종착없는 소리, 흥, 오 저년이 듣는다고. 저 욕시를 할 아사녀란 년이 듣는다고 염려마라〉(1938.10.29.)의 ‘종착없다’는 ‘요량없다’라든가 ‘일정한 주견이 없다’와 같은 뜻을 지닌다. 〈너 같이 표리부동하고 능갈친 놈은 헌신짝 팔매치듯 저파워 년한테나 갖다 앵길테다〉(1938.10.29.)의 ‘능갈치다’는 ‘몹시 능청맞다’로 바꿀 수 있다. 〈나는 소리도 무대같은 목탁을 두들기는 것도 신평영스럽고 손 끝에 몬놀몬놀한 염주를 헤이기는 더구나 고리타분하엿다〉(1938.11.8.)의 ‘신평영스럽다’는 ‘신통부같다’와 같은 말로 ‘근심걱정이 많아서 자질구레한 일을 돌아 볼 여유가 없다’로 설명된다. 〈그후로 금성의 사랑에는 거의 밤마다 먹거지가 버러졌다〉(1938. 11.23.)에서의 ‘먹거지’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벌이는 잔치’라는 의미다.

이외에 ‘한금해야’, ‘종주먹을 대다’, ‘컷속’, ‘가둥질을 치다’, ‘지축지축’, ‘괴란쩍다’, ‘산땃속이 빠르다’, ‘아갈잡이’, ‘행투’, ‘첫뵈’, ‘천착스럽다’, ‘쩍말없다’, ‘띠룩띠룩’ 등과 같이 우리말의 표미를 잘 살린 단어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런 단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앞에서 예문을 통해 나타난 ‘찐답잖다’, ‘노박이로’, ‘진동한둥’, ‘감때사납다’, ‘먹거지’, ‘신평영스럽다’ 등과 같은 단어들도 지

금은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어느 하나 방언인 것이 없음에도 이런 단어들이 오늘날 사어(死語)나 폐어(廢語)로 되어 버린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무영탑』에 나타났던 조금은 낡은 우리 고유어들이 대부분 사라져 버리게 된 책임은 기본적으로는 한국의 언중(言衆)들이 져야 하겠지만 시인과 작가들도 통감해야 한다.

그런데 현진건이 내보인 순수한 우리말 가운데 실제로는 한자로 된 것이 적지 않다. <이런 자리에 말을 하기가 준혹이 드는 듯, 그 여상진 흰 얼굴을 살짝 붉힌다>(1938.7.24.)의 ‘여상지다’는 ‘여상(女相)지다’로 ‘얼굴이 여자 얼굴처럼 생겼다’는 뜻이다. 오늘날에는 ‘남상’이란 말은 많이 쓰지만 ‘여상’이란 말은 거의 쓰지 않는다. <대공을 이루기는커녕 까딱하면 귀어허지가 될 모양입니다>(1938.10.15.)에서 ‘귀어허지’는 ‘귀어허지(歸於虛地)’에서 나온 말로 ‘오직 수고롭기만 하고 허망하고 헛되다’라는 뜻이다. 오늘날에는 이런 말을 얻어 듣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다. <그러면 뒷수쇄는 어떻게 했단 말인가, 뒷수췌지 앞수췌지 아주 학질을 떼었네>(1938.10.16.)에서 ‘뒤치다꺼리’라는 뜻의 ‘뒷수췌’에서의 ‘수췌’는 ‘收刷’라는 한자어에서 나왔다. <실상 주만 이도 불국사에서 얼무적거리라고는 생각지 안했다>(1938.11.15.)에서의 ‘얼무적거리다’는 ‘매사에 분명치 않음을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은 ‘孽無嫡거리다’에서 나왔다. <세상에 이러케 지순차순한 도적놈도 잇을가>(1938.9.5.)에서 ‘지순차순’은 ‘마음이 더 할 나위없이 온순하고 어질다’라는 뜻이 된다. ‘지순차순’에서 ‘지순’이 ‘至順’에서 나온 것임은 분명하다. <그 꾀를 실행하기에 제 혼자 힘으로는 조금 벅찬 것이 험절이었으나 힘을 빌릴 사람이 그리 아쉽지도 아니하였다>(1938.11.23.)에서 ‘험절’은 ‘몹시 험하다’라는 뜻을 갖는다. ‘험절’은 ‘險絶’로 표기된다. <눈앞에 그리는 아사녀의 눈매조차 아리송아리송 여불없이 부들리지 안했다>(1939.2.3.)에서 ‘여불없이’는 ‘위불없이’의 오기(誤記)로 보아야 한다. ‘위불없다’는 ‘爲不없다’에서 나왔고 ‘爲不없다’는 ‘爲不爲없다’에서 나왔다. 이 말은 ‘틀림없이’라든가 ‘의심할 바 없이’라는 뜻을 갖는다. 고유어처럼 보이는 우리말들도 이제는 잘 쓰이지 않거니와 한자 자체

도 보기 힘들다. ‘얼무적’, ‘힘절’, ‘지순차순’ 등이 한자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무영탑』을 통해서나마 확인할 수 있는 정도다. 이러한 고유어의 적극적인 선택과 사용은 현진건 특유의 미문주의(美文主義)를 열어 놓게 된다.

앞서 예거했던 1920년대의 단편소설들과 『무영탑』은 미문주의라는 또 하나의 공통점을 보여 준다. 현진건의 미문주의는 의성어와 의태어의 적극적인 사용을 또 하나의 기반으로 삼는다. 현진건의 대표적인 표현 기법으로 의성·의태어를 남용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앞서 든 문장에서 이미 ‘진둥한둥’, ‘몬늘 몬늘’, ‘지축지축’, ‘띠룩띠룩’ 등과 같은 의태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절 앞 넓고 넓은 못은, 바람도 없건마는 제 흥에 겨운 듯이 찰랑찰랑 밀려 들어와 새로 싸하 올린 석축에 부딪는다. 바그를 힌 물꽃을 날리고 갈 길을 몰라 찢 찢 매는듯하다가 더러는 수멸수멸 뒷걸음을 쳐서 멀리 물러가고 더러는 옆으로 빙그를 돌아 청운교 연화교 갓을 더듬더니 마침내 돌로 튼 흥예문을 찾아 내어 앞을 다투며 몰려 나가서는 어지럽다는 듯이 뱅뱅 돈다.〉(1938.7.25.)에서 ‘찰랑찰랑’, ‘수멸수멸’, ‘빙그를’, ‘뱅뱅’ 등을 빼버렸을 경우 문장의 완성도는 크게 떨어지게 된다. <배가 기우뚱기우뚱, 번쩍번쩍하는 금관이 물 속에 흔들리자, 수없는 구옥이 어지럽게 춤을 춘다. 희빈들의 어여쁜 얼굴들이 연꽃송이처럼 둥둥 떴다. 실바람에 나뭇기는 구름쪼각과 같이 아른아른한 깃옷 자락도 흐른다. 간맹간맹하는 황금 귀고리와 구슬 목걸이가 물거품 사이로 숨기 잡기를 한다.〉(1938.7.25.)와 같은 예문은 의성·의태어는 정확한 묘사에 기여하는 법임을 깨닫게 해 준다. <이 불바다에 헤엄치듯 가진 풍악이 울려 온다. 두리둥둥 법고가 운다. 옆어지는 바닷가 지르렁지르렁〉(1938.7.29.)은 완전히 시적인 표현이다. ‘두리둥둥’이나 ‘지르렁지르렁’은 촌철살인의 힘마저 보여 준다.

그러나 『무영탑』에서 모든 의성·의태어가 긍정적인 기능만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털이는 쉼쉼하하하면서도 연해 잔소리를 재우치며 땀을 뻘뻘 흘린다. 달을 가리엇던 구름장은 어른어른 지나 간다. 가닭가닭이 풀어지고 엷어져서 마지막엔 뿌윽스름한 김처럼 달얼굴에 서리었다가 이내

가뭇없이 살아졌다. 거물거물하던 그늘과 빛이 뚜렷해졌다. 탑신이 온물에 적시어 노흔 듯 불현 듯 번쩍인다.〉(1938.7.31.)와 같은 글에서 ‘빹빹이’, ‘거물거물’과 같은 단어는 부적절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주만은 전에 없이 황황해 한다. 털이는 입을 아 버린 채 수상쩍다는 듯이 제 아가씨의 기색을 살피었다. 뺨을 올리고 거물거물하는 밀초 불빛에도 제 아가씨의 얼굴이 이글이글 타는 듯이 붉은 것을 알아 볼 수 있었다. 그 새까만 눈썹 위에도 심상치 않은 기운이 떠돈다.〉(1938.8.7.)에서 아무리 흥분했다고 하더라도 처녀의 얼굴을 ‘이글이글 타는 듯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황황해 한다’도 명료하지는 않다.

〈사르럭사르럭 집웃자락이 부드럽고 미끄러운 소리를 낸다. 제글제글 노리개와 구실줄이 운다〉(1938.8.17.) 〈흥은 인제 이글이글한 불덩어리가 되어 그대로 디굴디굴 군다〉(1938.8.24.) 〈어른어른하는 달빛에서 그 방구리같은 몸을 꼬불랑꼬불랑하며 털이는 이리 가웃 저리 가웃 늘어진 이의 이모 저모를 자세자세 들여다 보고 있다가 예구머니나! 버럭 외마디 소리를 지른다〉(1938.8.27.) 등의 문장에 나타난 ‘사르럭사르럭’, ‘제글제글’ 등과 같은 의성어와 ‘이글이글’, ‘디굴디굴’, ‘꼬불랑꼬불랑’ 등과 같은 의태어는 대상을 생동감있게 표현하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특히 형이상학적 기운을 가리키는 ‘흥’은 ‘이글이글한 불덩어리’라든가 ‘디굴디굴 군다’와 같은 표현에 실리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형상화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 털이라는 인물의 가벼운 몸놀림도 여러 의성·의태어를 통과하면서 더욱 생생하게 가시화되고 있다. 〈아사달은 까무러친 그 이튿날 아침에야 겨우 깨여났다. 아리송아리송한 머리 가운데 한창 흥이 겨워서 겨누를 휘두르고 정을 들만치는 모양이 저 아닌 다른 사람과 같이 떠올랐다. 그 신이 난 잔 가락 굵은 가락이 잉잉하니 귓결에 울리며 제 몸은 반공에 둥둥 솟아 일렁일렁하는 듯하다. 돌불이 번쩍번쩍 흠어지는 대로 눈동자만큼씩한 수없는 아사녀의 모양이 마치 콩튀듯 튀어 올라 핑핑 내어 들리는 눈 끝에서 뱅글뱅글 맴돌아 돈다.〉(1938.8.28.)에서 ‘아리송아리송한 머리’라든가 ‘핑핑 내어 들리는 눈 끝에서’는 수식어와 피수식어가 잘 어울린

다고 하기가 어렵다. <주만의 성난 목소리는 벼락과 같이 털이의 귀에 떨어졌다. 그 얼굴은 꽃불을 담아 부은 듯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대변에 목청에 껍껍하게 쉬여진다. 찢어질 듯이 아늘아늘해진 입술이 부들부들 떴다. 제 아가씨가 노발대발하는 것도 여러 번 겪은 털이지만 이러케 역정이 머리끝까지 오르는 것은 처음 보았다.>(1938.9.2.)에서도 ‘껍껍하게’라든가 ‘아늘아늘해진’은 차라리 없는 편이 낫지 않을까. <출렁출렁 안압지에 물결치는 소래만 새어 들려도 까닭없이 가슴이 울렁울렁하였다>(1938.12.18.)에서는 물결치는 소리인 ‘출렁출렁’과 가슴뛰는 소리인 ‘울렁울렁’이 좋은 호응관계를 이루어내고 있다. 이렇듯 현진건은 더러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의성어와 의태어를 의도적으로 적극 구사함으로써 미문주의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게 된다.

『무영탑』의 서술방법상의 특징으로 웃음끼가 없는 점, 대화체가 많은 점, 묘사가 설명을 압도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행위묘사가 심리묘사를, 외면묘사가 내면묘사를 압도하고 있다. <차차 밥을 먹게 되자 가초가초 반찬을 담은 찬합은 어떻게 맞는지 몰랐다. 서홉밥 한 바릿대가 오히려 나뻐다. 어린애 모양으로 세 끼니가 까마케 기다리었다. 그 사이 틈틈으로 고음과 찜 같은 것도 물리 알리 털이의 손을 거쳐 들어 왔다. 한 밤에 오르고 한 밤에 내린다는 젊은 살은 여윈 자국을 메우듯 차 올랐다.> (1938.9.17.)는 단문(短文)이 보기 좋게 층승작용(層昇作用)을 보이고 있는 미문의 한 예다. <사치한 맨두리가 기름독에서 빠져나온듯하다는 서랏벌 서울 여자, 그 비싼 녹두가루를 비누로 풀어 때를 벗겨 내고 그 보담 더 비싼 은가루와 옥가루를 처덕처덕 얼굴에 바른다는 서울 여자, 먹으로 눈섭을 황을 그리고 심지어 입술에까지 주사를 올린다는 서울 여자, 울금향과 사향을 웃고름과 허리띠에 찬다는 서울 여자, 그러니 아무리 박색이라도 달과 같이 꽃과 같이 환하게 어여쁘게 보인다는 서울 여자, 십리 밖에서도 그 그윽하고도 야릇한 향기가 사내의 마음을 호러낸다는 서울 여자!>(1938.10.23.)는 기본적으로 나열법을 취하였다. 이 글은 다소 장황한 구성이 없지는 않지만 서랏벌 여자의 사치풍조를 여러 각도에서 재미있게 표현해 내고 있다. <그러나 한해 두해 지나는 사이에

기가 꺾기고 또 꺾기고 절이 삭고 또 삭아서 요새 와서는 그리 못 견딜 지경은 아니로되 그래도 이따금 치받치는 울화를 견잡을 길이 없었다. 심심하고 꽤쾌하고 울적한 빨갱이 곧 용돌의 일상생활에 오직 한 개의 낙은 이 검술공부이었다.〉(1938.11.8.)는 대목은 이 소설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내면묘사의 경지에 닿아 있다. 〈저 건너 언덕에 우뚝 우뚝선 소나무들의 그 춤추한 잎새로도 가느다란 빛발이 주출이 새여 흐르다가 어느 곁에 그 밑둥이 환해지자, 그 기름한 몸이 뉘쭈러기 업드려 그림자못 이쪽저쪽을 거의 가루질렀다. 물결은 이 난데없는 검은 그림자에 놀래어 떠나밀 듯이 일렁일렁 모혀들자 소나무는 물 속에서 우쭐거린다〉(1939.1.28.)는 물속에 비친 소나무의 모습을 단순한 식물현상이 아닌 생명현상으로 바꾸어 놓았다. 현진건은 이렇듯 아름다운 문장을 통해서 물활론(物活論)의 수준까지 나아 가고 있다.

미문이 지문에 남아 있을 때는 괜찮지만 대화 부분에 없었을 경우 오히려 어색해지는 결과를 낳기 쉽다. 유감스럽게도 『무영탑』은 이런 실례를 보여 주고 있다. 〈여보 젊으신네 한다 하는 재상가의 마마가 되사랴오, 의엿한 귀공자의 알뜰한 사랑 노릇을 하시랴오, 쿵쿵 열두 대문에 남종 여종 수백 명을 거느리고 능라주단을 휘감고 치감고 옥주발, 은탕기에 진수성찬이 썩어나고 눈이 부신 황금팔지, 가락지, 구슬 목걸이, 귀고리를 끼고 달고 걸고, 나가면 침향목 수레에 수없는 구종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예라 치위라, 벽제성도 호기롭고 들면 호피 방석에, 당나라 비단 금침에 원앵봉을 달게 꼴자리를 내한군데 지시해 드릴까, 으흐흐.〉(1938.12.22.) 이는 말이라고 하기 어렵다. 오히려 글에 가깝다. 게다가 이 말은 한 사람은 무식하기 짝이 없는 뚜장이 할멈으로 되어 있다. 이런 인물이 말한 것치고는 어휘력이 풍부하고 앞뒤가 너무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가.

정확한 묘사에 치중하다 보면 묘사주의로 빠져 버리기 쉽고 다시 묘사주의에 빠지다 보면 주관적인 서술태도를 지니기 어렵게 된다. 『무영탑』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드러냄으로써 사상소설로 확실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행동소설이나 사건소설적인 색채가 짙어지고 만 결과를 보이게 되었다.